

현안과 과제

| 산업단지 경쟁력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

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의 필요성

- 산업단지는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기본 시설이며, 생산 활동의 전지 기지로서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
 - 산업단지 내 생산 985조원(총제조업 대비 62.7%), 수출 4,121억달러(총수출 대비 74.2%)
- 산업단지에 대한 국제 경쟁력 비교와 불만족 요인 분석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

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인식 분석 결과

| | |
|---|---|
| <p>국내 산업 단지에 대한 만족도 낮고 경쟁력 저조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리나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4개 중 1개 기업(23.5%)은 이주를 고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이주의향은 입주시기가 길수록 낮아지다 20년 이상시 노후화로 다시 증가 · 경공업과 기계 업종의 경우 이주 의사가 30%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 - 이주할 경우 10개 기업 중 4개 기업(42.4%)이 해외 산업단지를 선호하여, 이들 기업이 실제 해외로 이주한다면 국내 산업 공동화가 우려되는 상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외 국가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중국(41.1%), 베트남(33.7%), 인도네시아(20.0%), 태국(5.3%) 순서임 |
| <p>국내 산업단지 경쟁력 약화 원인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첫째, 부지비용 등 입주비용 경쟁력은 아시아 주요 5개국 중 최하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내 기업이 이주 시 가장 크게 고려하는 입주비용 경쟁력(41위)은 아시아 주요국 대비 최하위 · 베트남의 입주비용 경쟁력이 가장 높고, 중국의 경우 두 번째 수준이지만 인도네시아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됨 - 둘째, 근로자 임금 경쟁력도 아시아 주요 경쟁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한국의 근로자 임금 경쟁력(43위)은 아시아 주요국 대비 최하위 · 근로자 임금 경쟁력 역시 베트남(23위)이 가장 높고, 중국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비해서도 다소 경쟁력이 낮다고 평가됨 - 셋째, 교육, 의료 등 산업단지 주변 삶의 여건에 대해 불만이 높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내 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점수는 평균 3.23점으로 나타남 · 반면 주변 삶의 여건은 점수가 2.80점에 불과해 전체 항목 중 가장 낮음 - 넷째, 산업단지 노후화로 기숙사나 주차 공간 등 편의시설에 대해 불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편의시설은 2.81점으로 기반시설(3.69점), 물류인프라(3.50점) 대비 낮은 편 |

시 사 점

- ① 정부차원에서 국내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
 -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물류인프라와 기반시설 개선
 - 산업단지 부지비용 절감과 같은 획기적 정책 지원
 - 주변 삶의 여건이나 단지 내 편의시설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
- ② 기업차원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
- ③ 개성공단을 활용하여 기업들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것도 대안

1. 산업단지에 대한 인식 조사의 필요성

- 산업단지는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시설이며, 생산 활동의 전진 기지로서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
 - 국내 산업단지 수는 국가, 일반, 도시첨단, 농공단지를 포함하여 2011년 말 현재 총 948개에 달함
 - 산업단지 내 기업체수는 63,748개로 전체 제조업 사업체 대비 19.5%를 차지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내 총고용은 171만 4천명으로 전체 제조업 고용의 50.1%를 차지
 - 또한 산업단지 내 생산액은 985조원으로 전체 제조업 생산의 62.7%, 수출은 총수출 대비 74.2%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, 생산, 수출 등에 핵심 기반 역할을 하는 시설임

- 따라서 산업단지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비교하고, 불만족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
 - 기업들이 산업단지 시설이나 주변 인프라, 정책 지원 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국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

< 국내 산업단지 현황(2011년 기준) >

| 구 분 | 단지수(개) | 업체수(개) | 고용(천명) | 생산액(억원) | 수출액(백만달러)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국 가 | 40 | 39,635 | 967 | 6,428,701 | 275,815 |
| 일 반 | 469 | 18,682 | 607 | 2,923,155 | 123,950 |
| 도시첨단 | 9 | 121 | 1 | 1,553 | 1.1 |
| 농 공 | 430 | 5,310 | 138 | 496,811 | 12,332 |
| 합 계 | 948 | 63,748 | 1,714 | 9,850,220 | 412,098 |
| 제조업 대비 비중 | - | 19.5% | 50.1% | 62.7% | 74.2% |

자료: 한국산업단지공단, 통계청, 한국은행.

주: 1) 산업단지 업체수는 기동업체수 기준이며, 전국 제조업체수는 2010년 자료임

2) 수출은 2011년 총수출 기준임.

2.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인식 분석 결과

○ 조사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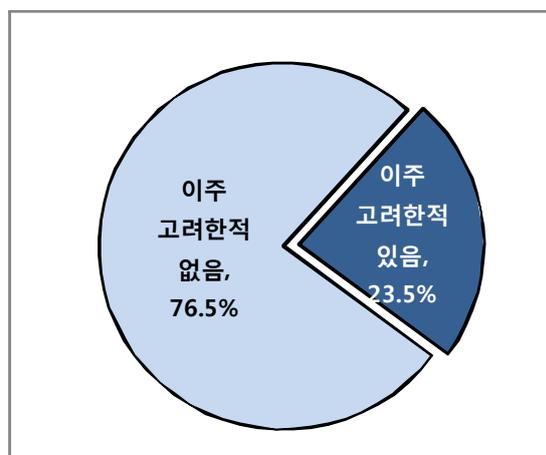
- 전국 산업단지 내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살펴보았음
- 조사기간은 2012년 9월 24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주일간이었고,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은 지역별, 규모별, 업종별로 1,000개 기업을 추출하여 전화독려 후 팩스 조사 실시

< 조사 개요 >

| 구 분 | 내 용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조 사 대 상 |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 |
| 조 사 기 간 | 2012.9.24 ~ 10.12 (3주일 간) |
| 조 사 방 법 | 팩스 조사 (응답기업 221개)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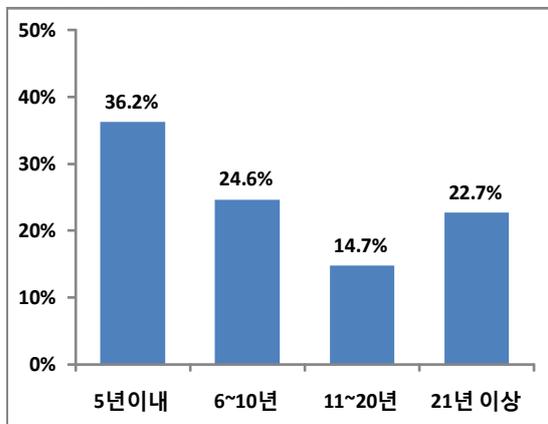
○ 국내 산업단지에 대한 만족도 낮고, 경쟁력도 저조한 실정

① 4개 기업 중 1개 기업(23.5%)은 산업단지 이주를 고려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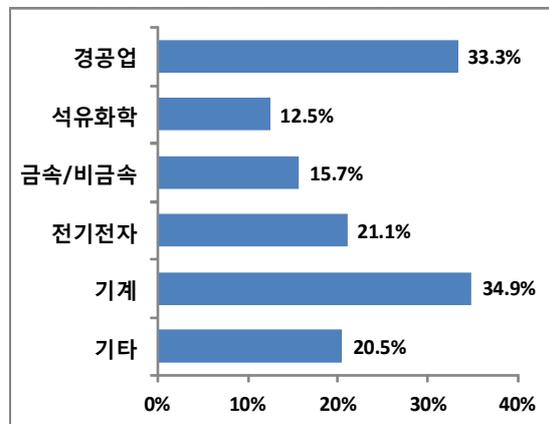


- (세부항목별 비교) 입주시기가 5년 이내 혹은 20년을 초과한 기업의 이주 의사가 높으며, 특히 경공업과 기계 업종이 이주 고려 비율이 높음
 - (입주시기) 입주 5년 이내 기업의 경우 이주 의사가 35.5%, 21년 이상된 기업들의 경우 22.7%인 반면, 입주 11~20년인 기업은 14.7%만 이주의사
 - (업종) 경공업과 기계 업종의 경우 이주 의사가 30%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, 석유화학, 금속/비금속 업종의 경우 낮음

< 입주시기별 산업단지 이주 의사 >



< 업종별 산업단지 이주 의사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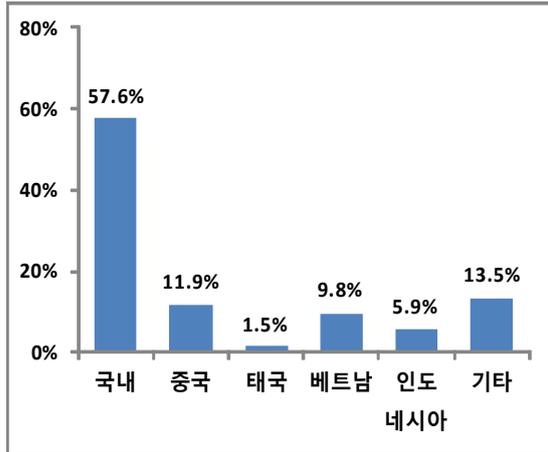


② 10개 기업 중 4개 기업(42.4%)이 해외 산업단지를 선호하여, 이들 기업이 실제 해외로 이주할 경우 국내 산업 공동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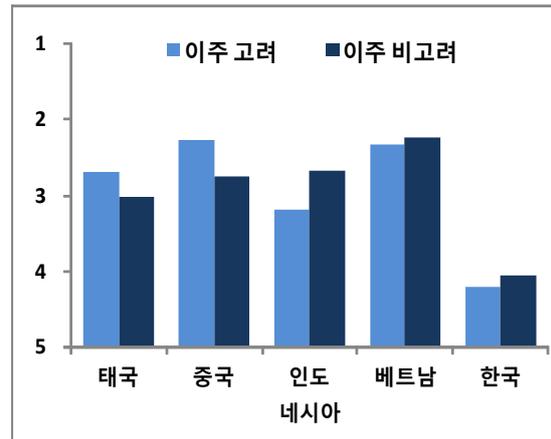
- (이주 선호 지역) 기업들은 향후 이주를 고려할 경우 국내의 다른 산업단지를 선호(57.6%)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다음으로 중국(11.9%), 베트남(9.8%), 인도네시아(5.9%), 태국(1.5%) 순서임
- 언어·문화적 차이, 인프라 부족, 부패 등의 문제로 해외로 이주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
 - 입주비용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보다 국내 타 산업단지로의 이주 선호가 높은 편임

- 실제 해외 진출 시 겪게 되는 언어·문화적 차이, 기대보다 비싼 임금 수준, 열악한 인프라, 정부 및 기업의 부패, 정보 부족, 고급 인력 부족 등 다양한 애로사항으로 있다고 알려짐¹⁾

< 이주 고려 지역 >



< 이주 의사별 입주비용 순위 비교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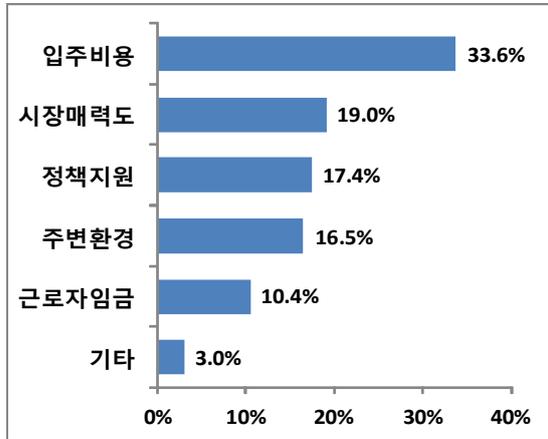
○ 국내 산업단지 경쟁력 약화 원인

① 기업들이 산업단지 이주시 입주비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단지의 입주비용 경쟁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

- 기업들이 산업단지 이주시 산업단지 자체에서 발생하는 입주비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기업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은 입주비용(33.6%)이며, 그 외에는 시장매력도(19.0%), 정책지원(17.4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 - 업종별로 볼 경우에도 모든 업종에서 입주비용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2차적으로는 경공업과 석유화학은 정책지원, 금속/비금속과 기계는 시장매력도, 전기전자는 인프라 시설 등 주변 환경을 중요하게 평가

1) 중소기업연구원(2006년),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효율적 지원방안

< 향후 산업단지 이주시 고려 요인 >



< 업종별 이주시 고려 요인 비교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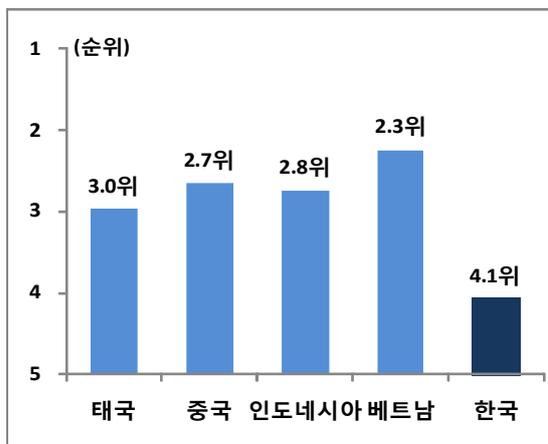
(%)

| | 경공업 | 석유 화학 | 금속/ 비금속 | 전기 전자 | 기계 |
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
| 입주 비용 | 34.8 | 28.1 | 37.8 | 35.5 | 31.4 |
| 시장 매력도 | 18.2 | 15.6 | 21.4 | 15.8 | 19.8 |
| 정책 지원 | 24.2 | 21.9 | 17.3 | 13.2 | 17.4 |
| 주변 환경 | 9.1 | 21.9 | 14.3 | 25.0 | 16.3 |
| 근로자 임금 | 13.6 | 3.1 | 8.2 | 7.9 | 11.6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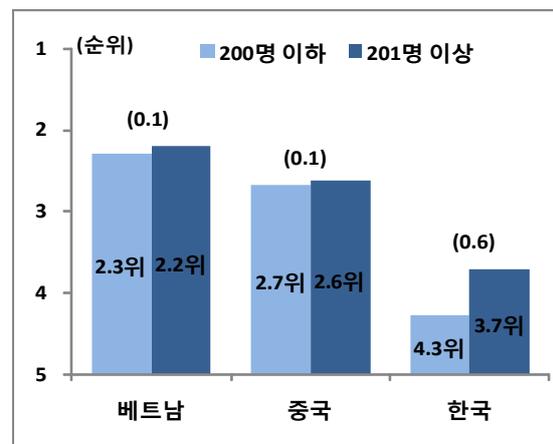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입주비용에 대한 경쟁력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순위가 매우 낮게 나타남

- 입주비용에 대한 경쟁력은 베트남(2.3), 중국(2.7), 인도네시아(2.8), 태국(3.0) 순이며, 한국의 경우 최하위 수준임
- 특히 국내 기업 중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국내 산업단지 입주비용의 상대적 순위가 더 낮은 것으로 평가
- 종업원 규모가 200명 초과 기업의 경우 국내 산업단지의 입주비용 경쟁력 순위가 3.7위인 반면, 200명 이하 기업의 경우 4.3위로 평가

< 입주비용 경쟁력 순위 비교 >



< 기업 규모별 입주비용 경쟁력 순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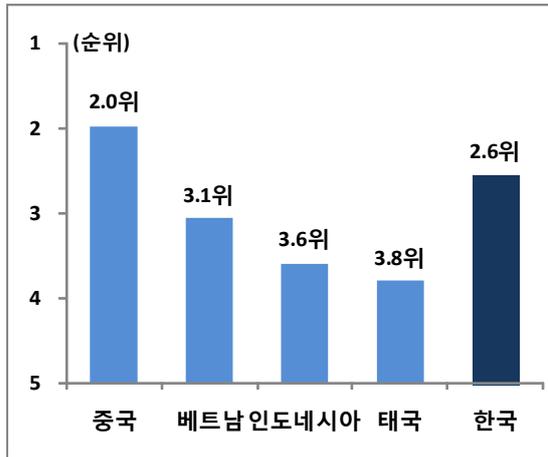


주: 괄호안은 격차를 의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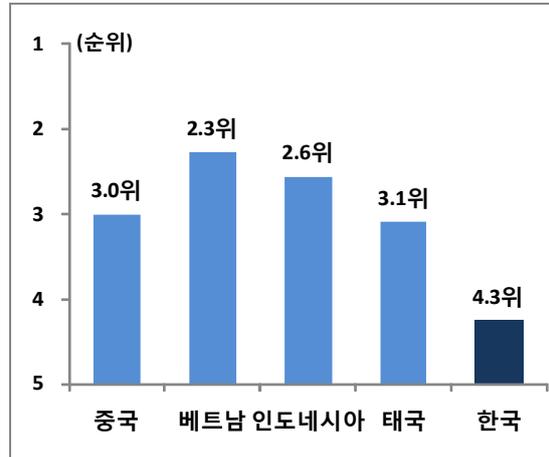
②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시 특히 국내 산업단지의 근로자 임금 경쟁력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

- 한국은 아시아 5개 주요국 중 산업단지의 전반적 경쟁력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평가
 - 산업단지의 전반적인 경쟁력 순위는 중국(2.0위), 한국(2.6위), 베트남(3.1위), 인도네시아(3.6위), 태국(3.8위) 순으로 나타남
- 그러나 한국의 근로자 임금 경쟁력 부문 순위는 4.3위로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
 - 한국의 근로자 임금 순위는 인도네시아(2.5위), 베트남(2.3위)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음
 - 중국의 임금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자 임금 순위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남

< 전반적 경쟁력 순위 비교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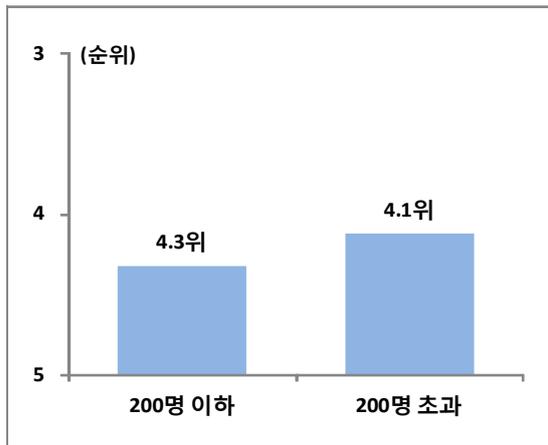
< 근로자 임금 경쟁력 순위 비교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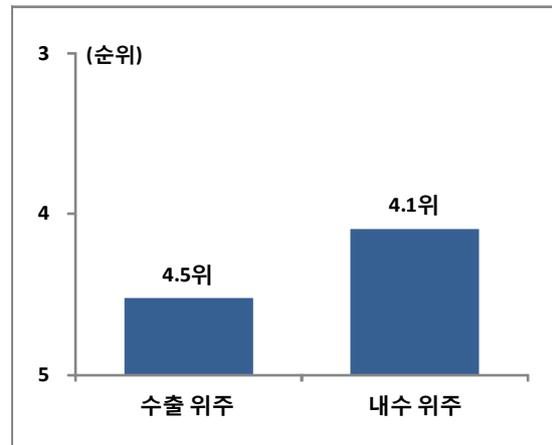
-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자 임금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더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, 내수보다는 수출 위주 기업이 더 낮게 평가

- 특히 종업원 규모가 200명 이하인 기업이 평가한 경쟁력 순위는 4.3위로 200명 초과 기업(4.1위)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게 평가
- 또한 내수 위주 기업(4.1위)보다 수출 위주 기업(4.5위)이 국내 산업단지의 근로자 임금 경쟁력을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

<규모별 근로자 임금 경쟁력 순위>



<생산제품별 근로자 임금 경쟁력 순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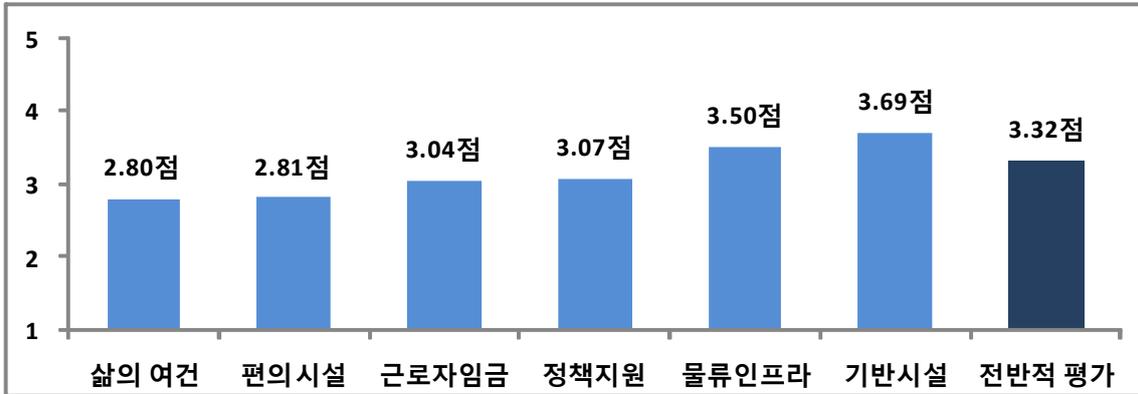


③ 국내 산업단지의 경우 교육, 의료 등 산업단지 주변 삶의 여건에 불만이 가장 높음

- (항목별 비교) 항목별로 살펴보면, 국내 기업들은 산업단지 주변 삶의 여건에 대해 가장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냄
 -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인식하는 국내 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결과는 평균 3.23점으로 나타남
 - 교육, 의료 등 주변 삶의 여건 항목의 경우 점수가 2.80점에 불과하여 다른 항목에 비해 현저히 낮음²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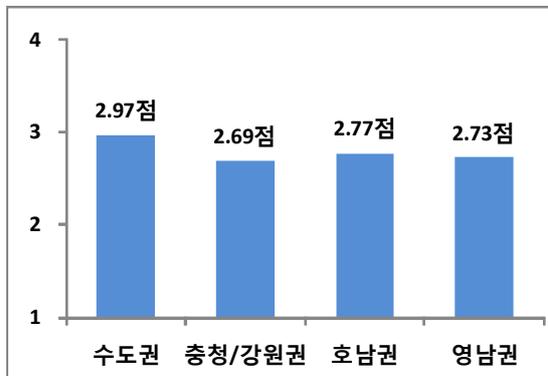
2) 입주비용 항목의 경우 기업들이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국내 타 산업단지와 비교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국제비교와 달리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되는 것으로 판단됨.

< 주요 항목별 비교(5점 척도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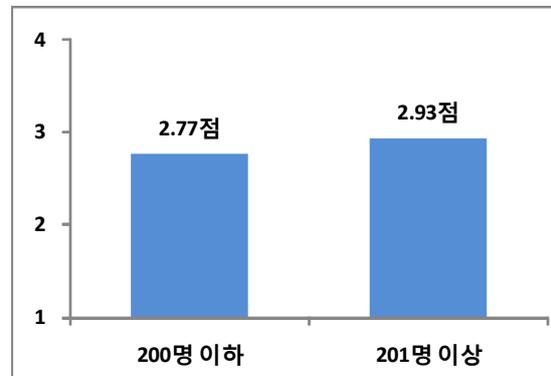


- (지역별/기업규모별 비교) 지역별로는 수도권(2.97점), 호남권(2.77점), 영남권(2.73점), 충청/강원권(2.69점) 순으로 나타남
 -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대체로 주변 여건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, 201명 이상 기업은 2.93점, 200명 이하 기업은 2.77점임

< 지역별 주변 여건 비교 >



< 기업규모별 주변 여건 비교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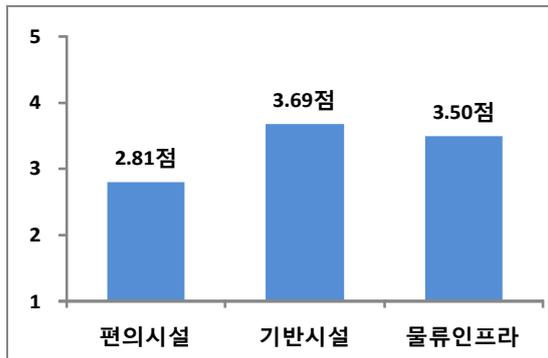
④ 산업단지 노후화로 기숙사나 주차 공간 등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높은 편임

- (편의시설 항목) 단지 편의시설의 경우 주변 삶의 여건과 유사하게 전체 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에 속하는 편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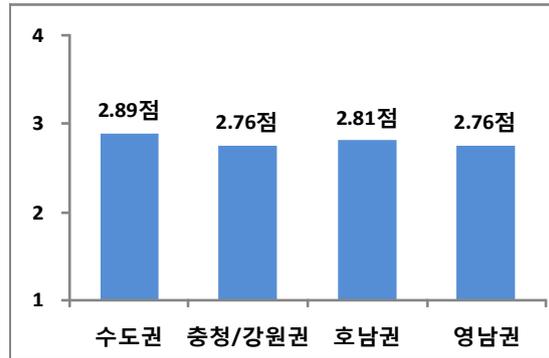
- 단지 편의시설의 경우 2.81점에 불과해 기반시설이나 물류인프라 항목 점수와 비교시 각각 0.88점, 0.69점이 낮은 등 점수에서 큰 차이

- (지역별 비교) 단지 편의시설에 대해 지역별로는 수도권(2.89점), 호남권(2.81점), 영남권(2.76점), 충청/강원권(2.76점) 순으로 나타남

< 편의시설 항목과 타항목 비교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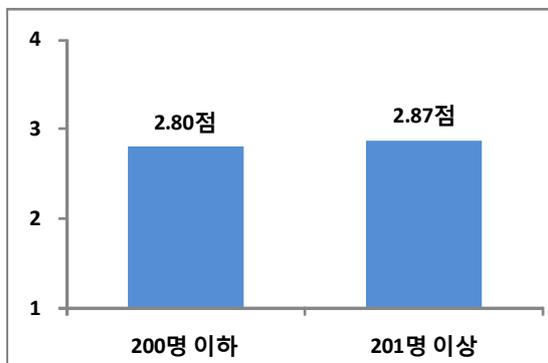
< 지역별 편의시설 점수 비교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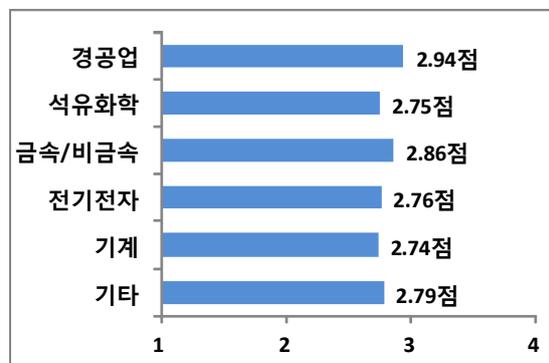
- (규모별/업종별 비교)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대체로 단지 내 편의시설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남

- 201명 이상 기업은 2.87점, 200명 이하 기업은 2.80점
- 업종별로는 경공업(2.94점), 금속/비금속(2.86점), 전기전자 업종(2.76점), 석유화학(2.75점), 기계(2.74점) 순서임

< 업체 규모별 편의시설 점수 비교 >



< 업종별 편의시설 점수 비교 >



3. 시사점

①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

첫째, 노후화된 산업 단지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물류인프라와 산단 기반시설 개선 마련이 필요

- 일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우 주변 물류인프라 및 단지기반 인프라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함
 - 기업들의 입주시기가 오래된 기업들의 경우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, 이에 따라 기업들의 이주 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 자체적인 운영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쟁력의 기반을 모색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함

둘째, 부지 비용 등 입주비용과 같은 경쟁력 열위 항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산업단지 부지비용 절감과 같은 획기적 정책 지원이 필요함

- 부지비용 등 입주비용같이 중요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산업단지의 부지비용 절감 대책이 나와야 함
 - 예를 들어 산업단지 입주비용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입주비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, 입주비용이 높은 산업단지의 비용을 경감시키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함

셋째, 주변 삶의 여건이나 단지 내 편의시설 같은 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정책적 지원도 필요

- 산업단지 주변 삶의 여건 개선을 통해 입주 기업들의 불만 요인을 해결하기 위

한 정책적 지원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함

- 기업들도 산업단지 내 기업협의체 등을 활성화하여 스스로 산업단지 주변 삶의 여건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함

②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구 노력이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

- 기업 차원에서는 근로자 임금 경쟁력 저하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해 생산성 향상 노력이 요구됨
 - 한국의 근로자 임금 경쟁력이 아시아 주요국 대비 최하위이므로, 이는 생산성 향상과 같은 기업들의 자구 노력을 통해 극복되어야 함
 - 정부는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 지원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기업들의 노력을 이끌어내야 함

③ 개성공단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들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것도 대안으로 바람직함

-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비용 경쟁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임
 - 상대적으로 국내 산업단지의 입주비용과 근로자임금 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비용경쟁력이 높은 개성공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

장후석 연구위원 (chahus@hri.co.kr, 02-2072-6234)

조규림 연구원 (jogyurim@hri.co.kr, 02-2072-6240)